

[대학특집] 인제대학교

의·생명 관련 학과 견고한 위상 바탕 신산업 인재 양성

기사입력 : 2022-09-02 08:07:31

인제대학교(총장 전민현)는 2021년 전국 모든 대학이 주목했던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단번에 선정됐다. 교육역량이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 받아 12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관리체계 구축, 비교과 과정 육성의 혁신 동력을 얻게 됐다.



인제대학교 캠퍼스 전경./인제대학교/

전국 5개 백병원을 보유한 재단의 전폭적인 교육지원도 계속된다. 인제대는 최근 5년간 재단법인으로부터 전국 최상위 규모인 약 1000억원의 법인 전입금을 지원 받았다. 그 결과 작년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1위'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지급되는 장학금은 연평균 343만원에 달한다. 5개 백병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도 놓칠 수 없다. 진료비 감면은 5개 백병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인제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물론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제대는 2023년부터 유망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의 학과를 신설했다. 반려동물보건학과, 웹툰영상학과, 재난방재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시빅데이터학부,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자유전공학부 등 신설된 모집 단위에는 학과 명칭에 걸맞게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취업과 연계된 자격증 비교과 과정도 함께 접목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역량 우수 대학 인증

교육부 재정지원대학 선정돼 120억 투입

백병원 보유한 재단서 전입금 1000억 지원
80억 투자 모든 전공 인공지능 기반 교육
반려동물보건·웹툰영상 등 8개 학과 신설

산학협력·취업 다양한 사업

교육부 링크 3.0사업 선정 240억 지원 받아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협력 성장 확산
의료 관련 학과 국가시험 합격률 '최상위'
일자리플러스센터·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인제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전국 5개 부속 백병원을 운영하며 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의료융합대학, BNIT융합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의·생명 관련 학과를 갖춘 인제대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의·생명학문 대학으로 그 위상을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된 인제대는 앞으로 6년간 총 80억원을 투자해 모든 전공에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체계를 혁신한다. 제조 분야의 스마트화, 지능화, 고도화를 이루는 AI융합형 및 신기술 수요에 부합한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링크 사업도 계속된다. 인제대는 지난 5년간 링크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며 '인제특화 브랜드'를 통한 지속 가능 산업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으로 산학협력형 대학 체제를 완성하고 대학 발 지역 기업 혁신을 이뤘다. 올해도 교육부의 링크 3.0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매년 40억원, 총 240억여원을 지원 받는다.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산학연협력 성장 모형의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인제대 학생들이 교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제대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률 60.1%, 유지 취업률 80.8% 등 우수한 취업 성과를 달성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등 취업 관련 사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취업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고시원을 운영해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를 배출했으며 지역인재추천제인 7급 공무원시험에 경남 전체 110명 중 인제대 합격자 48명으로 최다 배출했다.

이론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험, 협력, 탐구학습 기반의 IU-EXCEL 교육 과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점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2023학년도 수시모집 개요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최저학력 기준	면접실시 여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면접	실기
					교과	출결		
정원내	학생부교과	해당 모집단위			100			
	자기추천자	해당 모집단위		○	60		40	
	지역인재	해당모집단위		○	100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	○	80		20	
	의예	의예과		○	○	100		
						80		20
	약학	약학과		○	○	100		
						80		20
	간호	간호학과		○	○	100		
						80		20
특성화고교	해당 모집단위				100			
	스포츠헬스케어학과		○		80		20	
사회배려 대상자	해당 모집단위			○	60		40	
실기/실적 위주	자기추천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	30		20	50
		웹툰영상학과			20			80
	음악적재능우수자	음악학과						100
	체육특기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15	5		경기실적 80
정원외	학생부교과	해당 모집단위			100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	100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모집단위			○	60		40
		의예과	○	○	100			
		약학과, 간호학과		○	80		20	
실기위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음악학과					100	

▲ 202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학생부교과 등 13개 전형... 전체 모집인원 91.9% 1573명 선발

전형별 1개 모집단위 복수지원 가능

오는 13~17일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

인제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을 포함해 총 13개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91.9%인 1573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 1개의 모집 단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모집 단위라도 전형 유형별로 지원자의 학업 수준이 다르므로 복수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인제대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교과 성적 60%와 면접 성적 40%를 반영하는 자기추천자 전형으로 대부분의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면접 중심 전형인 자기추천자 전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과 성적을 면접 점수를 통해 극복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의예, 약학, 간호,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5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면접 20%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 고교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며 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체 학과는 영어 교과 2과목, 국어 또는 수학 교과 3과목, 자율 교과 4과목(진로선택

과목 1과목 포함)을 반영한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지원자격에 과학교과 이수단위 2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
(지역인재 전형 제외) 의예과는 국어, 수학의 모든 교과목과 과학교과 2과목을 이수단위를
고려해 반영하고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의 모든 교과목과 과학교과 2과목을 이수단위를
고려해 반영한다.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제한은 적용하지 않
으며, 의예과는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1), 과학탐구(택1) 4개 영역 각 2등
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농어촌학생 전형 제외), 약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또는 기
하 중 택1), 과학탐구(택1) 4개 영역 합이 9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농어촌학생 전형, 기
초생활수급권자 전형 제외) 간호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과학 중 1과목)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농어촌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제외)

원서접수는 9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학생부교과, 자기추
천자 전형은 2022년 11월 18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고,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의 경우
2022년 12월 14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